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서 무엇을 보았나?

4차 방중의 의미

Online Series

2019. 01. 21. | CO 19-02

이 재 영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중 경제협력과 대북제재완화 요청을 통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북한은 지난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했고, 과학교육 사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이러한 노선을 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네 차례의 방중 기간 동안 중국 과학원, 농업과학원, 북경계도교통지휘센터, 동인당 등을 시찰함으로써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을 탐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식 개혁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북한과 함께 만들고, 이를 미국이 고려하는 상응조치에 포함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3월 이래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2019년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네 번째 중국을 다녀왔다. 방중기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의 35번째 생일 연회를 다오위타이(釣魚臺) 영빈관에서 성대하게 베풀었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북경반점(베이징 호텔)에서 부부동반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각 측의 보도 자료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정식 방문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반면, 중국의 공식 보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이는 중국이 미중 관계,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하여 북한 답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관련보도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1월 10일자 노동신문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전환의 전략적 결심을 시 주석이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반면, 같은 날 신화사 보도는 조선노동당의 지난 일 년간의 전략노선 실시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만 언급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 북한은 중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의 문제를 공동 연구하고 ‘조중(통제)’한다는 비교적 강하고 적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였고, 양국 정상은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 과정 중 직면한 난관,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중국 측에 없는 북한 측 보도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정당한 요구이며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시 주석이 동의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반면 중국 측은 신화사와 인민일보 보도를 통해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정치적 해결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촉진하는데 힘써왔다고 시 주석의 발언을 언급했고, 북중 두 지도자가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요한 의견 일치에 도달했다고 간결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중요한 시기에 중국은 미국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변수와 중국식 개혁개방의 의미

2018년 3월 25~28일 1차 방중 때 김정은은 중국과학원을 시찰하면서 가상현실 기기 등을 체험했다. 같은 해 5월 7~8일 다렌 방문에선 수행단 일부가 동강(東港)상업구와 콘텐츠 기업인 화루(華錄) 그룹을 시찰했다. 2차 방중 직후 5월 14~19일 노동당 시도당 위원장 중심의 친선관람단이 중국으로 갔고, 단장이었던 박태성 당 중앙위부위원장은 중국의 개혁 개방 경험 학습이 방중목적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6월 19~20일 3차 방중 시기에는 농업과학원을 방문하여 ‘세포등판’ 등과 같은 농업혁신과 북중 농업 협력을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그 해 8월 이후 북한의 기층 농업, 철로 설비 등에 십여 차례 현지 시찰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 평양인터넷기술전에서 8백여 개의 과학기술 성과를 전시했다.

중국과학원과 농업과학원 시찰의 경험은 이번 신년사에서 과학교육 사업과 인재육성에

대한 김정은의 강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촌(中关村)에 위치한 중국과학원은 북한의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발전에 시사점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베이징 궈도교통지휘센터에서 ‘자동화와 통합 조종 체계’를 살펴보고, 이후 평양 무궈도 전차공장, 버스 수리공장, 경성군 온포온실농장 건설 준비 사업에 대한 현지지도를 수행했다. 그동안 김정은은 중국에서 학습한 경험을 북한 현지에 실험하려고 시도했다. 2018년 11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은 음성인식 가구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표했고, 노동신문은 이 대학이 국가 인공지능기술 산업 건설에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네 차례의 방중 기간 동안 중국과학원, 베이징 궈도교통지휘센터, 이창(亦庄) 국가급기술개발구 등의 방문은 바로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끊임없이 강조한 과학교육과 첨단 산업에서 과학기술의 강조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신년사에서 언급한 농업, 축산업, 수산 분야의 혁신과 증산은 중국 농업과학기술 혁신의 요람인 중국농업과학원과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돌아본 결과이기도 하다.

농업과 같은 전통산업과 IT와 같은 첨단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려는 북한이 중국 모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중국 IT기업의 농업 진출이다. 오랫동안 북한과 중국의 농업을 비교 연구한 한 전문가에 의하면 중국 IT 기업인 알리바바와 징동이 처음에는 농축산업 유통단계까지만 진출했는데 지금은 생산단계까지 진출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IT기업이 이제 소득 작목 재배, 양계와 양돈 산업 생산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국 IT기업은 이러한 전통 산업 진출을 통해 상생 협력, 지역 개발, 빈곤 퇴치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 현실을 볼 때 농촌 스스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IT기업이 전통산업의 유통·생산 단계에 진출함으로써 기업 이윤창출, 농민 수익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빈곤 퇴치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중국 정부는 거시적인 방향만 설정하고, 아래서부터 수많은 시장행위자들의 혁신활동이 산업발전을 추동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하향식(top-down) 접근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분권화를 통해 국영기업과 돈주 자본가들의 적극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상향식(bottom-up)의 산업 발전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방중과 신년사의 강조점 이동은 지난 2018년 4월 20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의 핵심인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전환을 통해 더욱

더 분명해졌다. 즉 김정은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을 채택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학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지식경제 시대에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 추진을 촉구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 방중의 목적은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의 전환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은 왜 동인당에 갔는가? : 북한식 개혁개방 탐색

이번 4차 방중에서 주목할 만한 방문지는 이창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35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제약기업 동인당(同仁堂)이다. 노동신문 1월 11일 1면은 김정은의 귀국 소식을 전하면서 평양제약공장 지배인 주정호의 김정은 방중 반응을 실었다. 그는 김정은의 베이징 동인당 참관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었고, 평양제약공장의 현대화로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 공장’으로 만들어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신문 2019년 1월 17일자 4면에서도 김정은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라”고 주문하면서 평양제약공장 등이 대표적인 현대화 대상임을 밝혔다. 즉 김정은이 주목하고 있는 평양제약공장의 현대화 모델로써 중국의 동인당을 방문한 것이다.

중국의 제약기술은 중의학과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남방 지역의 대표적인 중의약 기업이 편자황(片仔癀)이라면 북방 지역을 대표하는 제약 회사가 바로 동인당이다. 북경에서 한의학과 중의학을 비교 연구하고 오랫동안 중의학 발전을 관찰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제약기술과 중의학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R&D, 기업 간 M&A를 통해 대규모 생산체제와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의병원들을 중심으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빅데이터로 만들어 제약 분야의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중의학 빅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환자 정보(진단과 진료)를 병원과 국가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전폭적인 R&D 지원 하에 데이터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제약 산업 빅데이터를 쉽게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의 공백과 수요 증가로

중국에서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한 경우는 중의약 외에도 원격의료(진료)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 수립된 중국의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도 바이오산업 진흥 및 육성 전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번 4차 방중에서 동인당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작년 8월 21일 평양에서 낙후된 의료, 위생 체계에 격노한 이후, 중국의 제약 의료 산업과 동인당의 과학 기술 발전을 평양제약공장의 현대화 모델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의학처럼 북한도 고려의학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북한식 개혁개방의 중요한 사례로 삼으려는 것이다. 중국 모델의 북한 적용은 바로 국가가 모든 개인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관리할 수 있고,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유이며, 국영기업과 돈주 자본가를 중심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R&D를 집중시킬 수 있어 수월하다. 물론 북한은 아직까지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아래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개방하기 어렵다. 중국은 개방 정책에서 경제기술개발구를 통해 외국기업과의 합작과 국내 기업 육성을 병행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때문에 내부 국영기업 육성에 우선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의료·제약 분야의 과학기술과 관련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치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의료·제약 분야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국 동인당의 우황청심환처럼 북한에 풍부한 인삼, 오미자, 도라지, 당귀 등 약용식물을 바탕으로 개성고려인삼 등과 같은 상품을 만들면 외화벌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평양지역 제약회사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약을 제작하고 있다. 정치적인 요인은 의료와 제약 기술 발전을 통해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애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 TV가 지난 해 11월에 방영한 평안남도 개천시 준혁리 인민병원의 난치병 환자 치료 사례는 외과 수술이나 항생제 치료가 아닌 침, 약초와 같은 고려의학의 우수성을 선전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고려의학과 고려약 발전을 장려하고 선전함으로써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영향 평가 및 전망

4차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서로 다른 평가와 전망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네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중국이 중요한 이익 상관자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및 유관국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보도했다.

하지만 만약 김정은이 이번 방중을 통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이는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중국 개혁개방 모델의 일부 수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도 있다. 즉 한마디로 김정은의 4차 방중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좀 더 큰 복잡성을 더했다.

북한은 앞으로 자립 경제건설을 위해 과학교육사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중국식 모델을 배우고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중국 신화통신 10일자 보도에서 “조선은 중국의 발전 경험이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에 많이 와서 시찰과 교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중국 CCTV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발언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 적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다. 즉 북중 관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일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과학기술과 과학교육사업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접근에서 경제적 차원의 ‘지경학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식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집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핵화 의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식 개혁개방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북한과 함께 만들고, 이를 미국이 고려하는 상응조치에 포함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KINU 2019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